

# 제약업계, 표적 항암제 도전

## 유한양행·한미약품 ‘선봉장’

유한양행 ‘YH42946’ 개발 속도  
HER2 돌연변이 활성 억제

한미약품 신약 후보물질 선정  
선택적 HER2 저해제 연구 집중

국내 제약 업계가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표적항암제 후보물질 ‘YH42946’의 개발에 속도를 낸다. 유한양행이 차세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YH42946은 HER2를 표적하는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다. HER2 돌연변이 활성을 억제해 암 세포의 신호 전달을 저해하는 기전을 갖췄다.

유한양행은 올해 5월과 6월, 미국 식품의약품(FD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YH42946’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후 유한양행은 현재 ‘YH42946’ 임상 1/2상 시험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임상은 YH42946에 대한 최초의 사람 대상 연구로, HER2 이상 및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을 동반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에게 YH42946을 1일 1회 경구 투여해 진행되는 방식이다. 유한양행은 YH42946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항종양 활성 등을 평가한다.

YH42946은 유한양행이 앞서 상업화에 성공한 ‘텍라자’가 EGFR 돌연변이로 인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쓰



유한양행 본사

이는 것과 차별화해 설계됐다는 것이 유한양행 측 설명이다.

한미약품도 새로운 신약 후보물질로 HER2 저해제 치료제 개발에 재도전한다.

한미약품은 올해 4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4)에서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를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이 선택적 HER2 저해제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에 역량을 쏟고 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 신약 후보물질은 HER2 엑손20 삽입 변이 및 HER2 야생형 종양 동물 모델에서 항암 활성을 나타냈다. 또 뇌 전이 동물 모델에서는 해당 물질 투여군이 대조군 대비 뇌 전이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뇌 전이 억제 효능이 입증됐다.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은 이미 지난 2021년, 이전에 치료 받은 경험이 있거나 HER2 엑손20 삽입 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쓰이는 신약으로 ‘포지오티닙’을 개발한 바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항암 치료제 시장은 단순 약물에서 시작해 특정 단백질을 표적하는 방식 등으로 시시각각 새로운 패러다임을 겪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정복하는 것이 다양한 암종을 치료하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HER2의 경우에도, 이 단백질과 이 단백질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발현하는 정도에 따라 암을 분류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치료제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유한양행, AI모델 기반 신약개발 박차

온코마스터·휴레이포지티브 협력  
‘의미 있는 임상적 통찰’ 확보 방침

유한양행은 온코마스터, 휴레이포지티브와 함께 인공지능(AI) 모델을 이용한 신약개발의 포괄적 공동연구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온코마스터와 휴레이포지티브는 AI 기반 치료반응성 예측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 타겟 암종과 환자군 선별, 병용요법 개발 등을 통해 유한양행이 보유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개발 성공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밀의학 기반의 혁신적 신

약개발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글로벌 신약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양행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와 멀티오믹스 기반의 신약 개발 방법론을 본격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기술로는 도달하기 어려웠던 ‘의미 있는 임상적 통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조옥제 대표는 “제약산업은 데이터와 혁신의 융합이 핵심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유한양행의 AI 신약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협력을 통해, 유한양행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성공률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신제품

## “오설록 ‘홀리데이’ 한정판 만나보세요”

아모레퍼시픽 류은지 작가 협업

아모레퍼시픽은 고급 차 브랜드 ‘오설록’에서 류은지 동화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2024 홀리데이 에디션’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이번 한정판은 녹차를 사랑하는 가상 모임인 ‘오설록 그린티 스카우트’ 대원들과 ‘윈터 티마켓’을 주제로 꾸며졌다.

오설록 티뮤지엄과 티하우스, 티샵, 직영몰 등에서 6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류은지 작가가 그려낸 디자인이 적용된 패딩 담요를 6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오설록 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홀리데이 트라이얼 키트’를 비롯한 구매 금액대별 증정품도 다양하



오설록 ‘2024 홀리데이 에디션’ /아모레퍼시픽

게 마련됐다.

또 이번 2024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출시된 ‘티 베리에이션 오’를 구매하는 고객은 ‘그린티 스카우트 강아지 대원’ 그래픽이 새겨진 키링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용 행사로는 케이크 2종 구매 시 ‘베이크리 데코팩’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 LG생활건강 ‘더후’ 레드닷 분상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 고급 화장품 브랜드 더후가 세계 최고 디자인 행사인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더후 로얄 아트 기프트 패키지’는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한국 전통과 궁중 예술의 아름다움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후 로얄 아트 기프트 패키지’는 궁중 건축물, 공예 등에서 얻은 영감을 포장 상자, 보자기 가방, 북 주머니 파우치 등으로 구현한 것이다.

더후는 황색, 청색, 백색, 적색, 흑색 등 다채로운 오방색을 활용해 동양 문화의 가치, 균형미, 진정성 등을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더후는 환경 부담을 덜기 위해 접착을 최소화한 지기 구조로 박스를 개발했고, 보자기와 북주머니는 일상 소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LG생활건강 디자인센터 관계자는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정관장, ‘에브리타임’ 리뉴얼

출시 12주년... 누적 매출 1.5조 돌파  
‘가장 쉬운 자기 사랑법’ 캠페인 전개

정관장이 ‘에브리타임’ 출시 12주년을 맞이하여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시대를 읽는 건강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또한 리뉴얼을 기념해 연말까지 ‘가장 쉬운 자기 사랑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에브리타임’은 2012년 업계 최초로 홍삼을 스틱형으로 선보이며 간편 홍삼의 시대를 연 정관장의 시그니처 브랜드다. 간편함과 섭취 편의성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니즈와 맞아 떨어지면서 지난 12년간 1조5598억원의 누적매출액을 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리뉴얼은 ‘정관장 홍삼정’과 공유했던 디자인 콘셉트에서 벗어나, 원(Circle)의 운동을 독자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삶의 활력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메인로고를 영문명 ‘EVERYTIME’으로 변경해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에브리타임의 글로벌 확장성까지 강조했다. 이번 리뉴얼은 ‘에브리타임 오리지널’, ‘에브



정관장 ‘에브리타임 필름’ /KGC인삼공사

리타임 소프트’, ‘에브리타임 샷’, ‘에브리타임 필름’ 등 ‘에브리타임’ 전 제품에 적용된다.

정관장은 초개인화 시대에 소비자의 건강니즈와 취향이 세분화되는 만큼, 고객 각각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간편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이번 리뉴얼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브리타임’은 일상, 여행, 운동 등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춰 건강을 케어할 수 있도록 스틱, 필름, 앰플 등 다양한 제형을 선보이고, 맛과 소재, 기능성을 다변화한 제품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아울러 ‘가장 쉬운 자기 사랑법’ 캠페인을 마련, 이달 31일까지 에브리타임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스페셜 홀리데이 기프트’ 등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삼립, ‘흑초강정·고추잡채’ 호빵 선택

정지선·임태훈 셰프 레시피 재해석

삼립은 최근 인기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화제가 된 중식 셰프 정지선과 임태훈의 호빵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삼립은 ‘딤섬의 여왕’으로 불리는 정지선 셰프의 고유 레시피를 재해석해 ‘흑초강정호빵’을 선보였다. 흑초와 노두유(중국식 간장)를 더한 돼지고기로 깊은 풍미를 살렸다.

함께 선보인 ‘고추잡채호빵’은 임태훈 셰프가 운영하는 ‘도량’의 대표 메뉴인 피망 고기 볶음(고추잡채)을 활용

했다. 굴소스와 두반장으로 매콤한 감칠맛을 더한 돼지고기에 피망·죽순을 넣어 아삭한 식감을 살렸다.

두 제품 모두 전국 편의점, 마트, 슈퍼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삼립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두 셰프들의 ‘중화 호빵 대전, 호빵요리사’영상을 공개하고 ‘호빵요리사 투표 이벤트’를 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호하는 제품에 투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두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티엔미미·도량)의 식사권(2팀, 총 8명)과 삼립호빵 신제품(30명) 등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 JW중외제약, ‘프렌즈’ 렌즈 관리용액 2종

JW중외제약은 자사의 눈 관리 브랜드 ‘프렌즈’에서 렌즈 관리용액 2종을 재단장해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프렌즈 ‘렌즈세정액’과 ‘렌즈보존액’의 기능성, 안전성, 디자인 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두 제품 모두 눈물과 동일한 pH 수준을 유지해 눈에 대한 자극이 최소화

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인증도 받았다.

이와 함께 JW중외제약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 젊은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프렌즈 렌즈 관리용액 2종은 전국 약국과 JW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청하 기자